

## 육군, 비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개최

첨단 정보화시대 미래 전장환경변화로 중요성 커져



**육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지난 5월 4일 계룡대 소강당에서 벤처업체와 방위산업체 관계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품질관리소 연구원, 방위산업진흥회와 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무기체계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비무기체계'란 무기체계로 분류될 수 없는 장비·물자·시설은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통칭하는 용어로, 첨단 정보화 시대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비무기체계 업무의 조기 정착은 물론, 민·군 정보교류를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제1부 비무기분야 장비·물자 견학에 이어, 제2부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영제 육군참모차장은 훈시를 통해 "군사혁신에 따라 첨단무기체계가 전력화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비무기체계의 발전속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금번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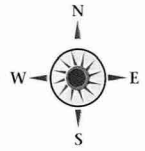
는 무기체계와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는 계기로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비무기체계 분야는 그동안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목표 및 방향을 정립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부서별로 분산하여 업무를 추진하다가 2000년 12월 1일부로 육군본부에 비무기체계 조직이 신설됨으로써 비로소 무기체계와 균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은 야전부대, 정책부서 뿐만 아니라 국방관련 연구소, 업체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고, 무기체계와 병행해서 비무기체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비무기체계 중요성에 대

한 정책부서의 의식전환과 예산 반영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산업체에서는 오리엔탈에서 신형방탄헬멧, 부력방탄복, 군용방탄복, 전투지원병 방탄복 등을, 한국통신기에서 차세대 기갑병 헬멧을, 기아자동차에서 2½톤 성능개량 차량과 5톤 성능개선 차량을, 연합정밀에서 디지털 인터컴 세트 등을 전시하였다.

이어 발표 및 토의에서는 육군의 비무기체계 업무수행방안과 종합발전 계획이 소개된 후 국방과학연구소의 디지털 전장환경 아래서의 병사체계, 국방품질관리소의 비무기성능유분야 신기술 발전추세 등 7개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육군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비무기체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민·연·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련업체간의 불필요한 경쟁 및 노력낭비를 지양하는 한편, 민·군 신뢰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육군, 전력증강방향 공개설명회 개최

### 무기획득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방산업체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

**육군**은 지난 4월 27일 계룡대 소강당에서 방산업체 관계자, 국과연 연구원, 전력증강분야 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전력증강방향 공개설명회」를 가졌다. 육군의 「전력증강방향 공개설명회」는 「지킬 것은 지키되 공개할 것은 과감하게 공개한다」는 방위력 개선사업 지침에 따라 지난해 3월에 이어 두번째 갖는 행사였다.

이날 전력증강방향 공개설명회에서 육군은 주요 전력증강 방향 및 개념을 소개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육군이 운용할 예정인 11개 기능 분야 40개 중점사업에서 요구되는 무기성능 등을 소상하게 공개하였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각국의 무기체계 발전추세와 연구개발 동향을 개관하고, 독자개발이 필요한 신기술은 물론, 핵심 연구분야 등을 소개하여 방산업체 관계자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육군의 전력증강 방향과 요구되는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 공개는 관련기관, 업체 등의 연구방향 설정 및 개발업무에 도움을 주는 한편, 무기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기체계 소개관을 운용, 관련자료 공개 및 상담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관련정보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산 양만춘함, 싱가포르 방산 전시회 참가

### 우리방산 장비 우수성 적극 홍보

**세계** 각국의 해양 방위산업 능력을 홍보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 해양 방산 전시회(IMDEX ASIA 2001)에 우리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인 양만춘함(KDX-I/3,500톤급)과 대표단(단장 김덕수 소장)이 참가했다. (IMDEX: International Maritime Defense Exhibition & Conference)

싱가포르 해군 창설 34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구축함, 호위함 등 세계 13개국 16척의 군함들 뿐만 아니라 미·영·불·러·일 등의 방산강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 등 모두 25개국 국방부장관 또는 해군참모총장, 기타 해군

수뇌부가 다수 참석했다.

방산 전시회에는 23개국 146개 방산업체가 참가하였고, 한국은 대우조선, 대우통신, 현대중공업 등의 업체가 참가했다.

특히 한국측은 양만춘함 참가를 비롯 국산 함정 모형 8종류, 페리션 여객선 모형 2종, 방글라데시에 판매한 바 있는 국산 호위함 모형 1척과 함께 아울러 5개 조선사의 각종 방산장비를 전시하였다.

우리 해군은 양만춘함에 참가국가 주요인사들을 초청, 국내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홍보를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하고 또한 선진 국가의 첨단무기체계, 방산능력 등

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해군은 이번 행사가 다수의 해군 함정과 각국 지휘부가 참가한 亞·태지역 유일의 해양관련 방산전시회임을 감안, 한국형 구축함을 비롯한 방산분야 각종

장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함정 등 방산물자 수출에 기여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내 안보협력 및 군사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영천 호국용사묘지 준공

### 명실상부한 호국성지로서의 면모 갖춰

**대한** 민국 재향군인회는 지난 4월 27일 경북 영천시 고경면 청정 2리 「영천 호국용사묘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요인과 각 정당대표, 원로장성회원, 참전 및 친목단체 대표, 참전용사, 시·도 재향군인회 대의원, 재향군인여성회 회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 호국용사묘지 준공식」을 가졌다.

「영천 호국용사묘지」는 '97년 9월 2일 기공식을 갖고 대역사를 시작한 이래 3년 2개월이 경과한 작년 10월 31일 공사를 완공하고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11만 5천여평의 부지 위에 총 220억원(정부지원 180억원, 향군부담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영천 호국용사묘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제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납골묘(2만2천기, 1기당 1평), 납골당(3만기) 형태의 묘지를 조성하는 한편 현충탑, 현충문, 홍살문, 영천대첩비(공사중) 등을 비롯한 각종 조형물을 조화롭게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호국성지로서의 면모

를 갖추게 되었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호국용사의 명예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호국용사는 물론 그들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안장혜택이 주어지는 국립묘지를 지역단위(미국의 경우 114개소)로 조성하여 그 곳에서의 추모행사를 통해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대결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현역 및 연금수급자 등 극히 제한된 호국용사들에게만 안장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준공식을 가진 「영천 호국용사묘지」와 금년 11월 완공예정인 「임실 호국용사묘지」를 조성하여 6·25 및 월남참전용사들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안장혜택을 부여한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 호국용사묘지는 공원화하여 묘지가 혐오 시설이라는 개념을 불식시키고 납골당 시설 등으로 확충하여 정부의 장제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민의 안보교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향군인회에서는 영천, 임실지역 외에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 북부 일부지역)지역과 부산 및 경남지역에 각각 20만평 및 10만평 규모의 호국용사묘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